

AI가 만든 콘텐츠 홍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충청일보 | 승인 2026.06.16 15:53

[교육의 눈] 노기섭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다 보면 놀라운 이미지와 영상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유명 정치인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영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듯한 사진이 공유되기도 한다. 언뜻 보면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한 콘텐츠의 상당수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콘텐츠 생산은 인간의 전유물이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기자가 필요했고,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필요했다. 영상 제작 역시 촬영과 편집이라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해도 기사,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순식간에 생성할 수 있다. AI는 콘텐츠 생산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개인 창작자들도 전문 장비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AI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은 동시에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도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자본이 필요했다. 이제는 개인도 AI를 이용해 수천 개의 게시글과 이미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품질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신 AI는 문맥에 맞는 글을 작성하고,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정교하게 모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사실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생성하는 확률 기반 모델이다. 따라서 AI는 때때로 발표된 적 없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며,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능력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졌지만, 이제는 누구나 AI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우리는 AI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책임까지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AI는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답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의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다.

